

■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소감 : 캠프(CAMP)

우선, 심사위원들과 백남준아트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상적 불안이 배가되면서 더욱 일상이 된 미디어 상호작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백남준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1984년 방송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과 1986년의 후속작 <바이바이 키플링>은 오늘날의 맥락에서 돌아볼 때 더욱 시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이 작품들은, 상황이란 변하게 마련이며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지니고 있어서 틀릴 수도,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업이야말로 이 지구의 기억과 욕망에 대해 여전히 그 어떤 것보다 생생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디어에 대해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 모든 새로운 매체는 그 이전 매체를 콘텐츠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은 공연, 영화, 소설을, 인터넷은 텔레비전 연속극, 전화 대화, 잡지를, 인공지능은 인터넷 상의 내용들을 콘텐츠로 삼는다는 것이죠. 백남준은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며, 인지조차 어려울 만큼 먼 미래까지 포함하여 다른 여러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조각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정원도 될 수 있고 전지구적 규모의 방송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유로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단순히 어떤 매체를 또 다른 매체에 채워 넣는 재조립이나 규칙화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움직임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예술은 기존 문화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기술은 현재의 적용 양상이나 비판에 의해 소진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니 누구라도 다시 “매체”의 정원 혹은 시공간에서 노닐 수 있고 감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캠프는 손에 흙을 묻히는 일, 가벼운 몸, 빛나는 너그러움, 초국가주의, 매체 특정성, 용기, 가차없음의 가치,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아 숨 쉬며 여러 시공간을 만나게 하는 우정과 발명이야말로 이 상에 담긴 정신이라 여기고 그 가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수년 간 캠프와 함께했던 모든 협업자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Acceptance note, by CAMP

First, to the jury and the institution, thank you. We are honoured to receive this award in Nam June Paik's name in this year of ubiquitous, traumatic, and banal media interaction. The 1984 transmission *Good Morning Mr. Orwell* and the follow-up 1986 *Bye Bye Kipling* are meaningful and poetic, today. They are reminders above all, that things change, that we can take positions, that we can be wrong or glitch or fail, and that the collective work of artists might still be some of the more vivid milestones we have of desire and memory on Earth.

There is an old saying :) about media, that every new medium takes previous ones as its content. So that TV's content is theater, film and novels, the internet's content is TV serials, phone chats and magazines, AI's content is stuff on the internet, and so on. Nam June Paik showed us that this can also work in reverse, and in many other directions, including barely-perceptible futures. TV can be sculpture, but also a garden, or planetary-scale broadcast art. And not just as metaphors. There are moves other than cannibalization, academization, stuffing one thing into another to reap some profits. Art is not a subset of existing culture. Technology is not exhausted by its current deployment, or its critique. You and your friends can and should, dare to again play in the gardens or sewers of the "medium", which after all is just another word for the environments we are in.

CAMP cherishes and hopes to relay the artistic but also more general values of getting one's hands dirty, lightness, radiant generosity, transnationalism, media specificity, courage, relentlessness; historically alive, time and space bending, friendship and invention that are our translation, of what this award contains. We wish to thank all our collaborators, and friends and comrades of CAMP, over the years. Onwards.

Our best wishes,
CAMP